

# “비수도권 건설·투자 규제 완화 경제 회복 물꼬 트겠다”

###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안정·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공공투자 상반기 집중 집행·인구 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연장도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으로 규제 완화로 잡았다. 특히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관리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혔다.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꼽히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 구조개혁 노력은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건설투자, 상반기 집중 지원...3%대 물가 잡기 총력전=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소비·투자 등 내수는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더딘 물가 안정세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일·채소 관세 지원, 공공요금 동결, 10조8000억원 규모의 물가대응 예산 등 상당수 내수지원 대책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절반 이상이 집중 집행된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부진한 건설투자에 조속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다.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1분기에 채용하는 등 일자리 정책도 조기 시행에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PF·가계부채·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된 현안에 대한 안전판도 촘촘히 설계한다. 정부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계속된다. 고금리 기조에도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동시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세컨드 홈...지방 부동산 규제 확 풀다=경제 역동성 구원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비수도권을 주타깃으로 짜인 것이 특징이다. 지역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은 완화될 전망이다. 스마트팜 시설에 농지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소멸 고위험 지역의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창업·사업장의 취득세 감면 조지도 연장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을 모두 면제하고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때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담겼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지난해 부진했던 투자를 반등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역동 경제 구원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은 상반기 중 공개된다.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규제 샌드박스 개선방안 등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도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3일 NH농협생명 광주총국(총국장 최순동)은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광주 관내 농업 보험담당자 100명이 '2024 농협생명 사업추진 방향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농협생명 상품 개정사항 교육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보호를 위한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가구 저축 여력 양극화...여윌돈 생기면 대출부터 상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 소비자 보고...월평균 가구 소득 511만원

지난해 가구당 저축 여력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4일 발표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 소득은 511만원으로 2022년(489만원)보다 22만원 늘었다. 가구 소득에서 고정·변동 지출과 보험료, 대출 상환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 가능액으로 간주할 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남아 저축 여력이 높은 소비자는 28.1%로 2022년(25.1%)보다 3.0%p 늘었다.

저축 여력이 낮은(0%~30% 미만) 소비자도 같은 기간 32.3%에서 34.9%로 2.6%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저축 여력이 중간 수준인(30~50%) 소비자 비중은 29.9%에서 24.4%로 5.5%p 축소됐다. 연구소는 "가계 재정이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월 소비·지출액은 지난해 평균 243만원으로 2022년(241만원)보다 2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항목은 식비, 공과금, 경조사 등이었으며 의류·잡화 구입, 국내 여행, 명품 구입 비용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해 대출 보유율(49.2%)은 2022년(50.4%)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평균 대출 잔액(4287만원→4617만원)은 더 늘었다. 대출 보유자 중 최근 1년 내 대출을 중도 상환한 비율은 61.1%(전액 중도 상환 20.6%·일부 중도 상환 40.5%)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해 7월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오늘이 가장 싼 광주 아파트

3년새 32% 상승...층간소음 검사 강화로 분양가 상승 전망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3년새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3.3㎡(1평)당 분양가는 1633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층간소음 검사가 강화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까닭에 자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건비와 원재값도 오르면서 분양가가 더 비싸질 거라는 분석이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33만원으로, 2020년 11월(1235만원) 대비 약 32.6% 올랐다. '국평'(국민평수)이라고 불리는 84㎡를 기준으로 3년 동안 무려 1억3500여만원 오른 셈이다. 평당 분양가는 지난 2020년(11월) 1235만원→2021년(“) 1418만원 →2022년(“) 1568만원, 올해 1633만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하는 데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검사 강화 기준을 발표한 것도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한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열 효과가 큰 값비싼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또 층간소음 검사 강화로 인해 층간 골조 두께를 늘리거나 충격흡수 효과가 좋은 건축자재를 써야 한다. 공사비 자체도 증가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152.54로 전년 동기의 147.63 대비 약 3.32% 올랐으며, 3년 전인 2020년 11월 120.59와 비교하면 31.95%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의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최저시급도 인상돼 인건비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아파트 건축에 가장 중요한 시멘트와 레미콘 등 원자재값까지 모두 올라 분양가는 앞으로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며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에도 착공이 늦어지면서 건축비가 최소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입지가 좋은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000만원을 쉽게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